증례Ⅲ - 1

Konus bridge를 이용한 부분무치악 수복 증례 (치아지지 국소의치에서 Konus bridge의 적용)

손상준, 이청희, 조광헌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일반적으로 부분적인 치아결손은 국소의치에 의해 수복된다. 그리고 국소의치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증례일지라도 여러 가지의 처치방침이 검토되어, 여러 종류의 치료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동일 증례라 할지라도 한 가지 설계방침만으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상의 보철임상에서 진단 즉 최선의 보철치료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소의치의 설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예후 판단이나 진단에 관해서도 불명확한 요소가 많이 있으며, 환자 측의 큰 관심인 '이 의치는 얼마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철학에 있어서 Telescopic crown의 사용개념은 Peeso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Miller에 의해 널리 소개되기 전까지는 많이 인식되지 못한 상태였다. 1973년 K.H.Korber는 Konuskrone-telescope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telescope가 평행 축을 이용한 cylinder type인데 비해 내관의 축면에 약간의 각도를 부여한 cone-type으로 설계되었다. 그후 Yalisove는 1977년에 소수 잔존 지대치에 coping crown을 장착하여 의치로 덮는 overdenture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crown and sleeve coping을 발표하였다.

Telescopic unit는 직경이 다른 두 개의 원통형 구조로 된 이중 치관으로써 지대치에 영구 고정되는 일차 coping 또는 내관과 가철성 국소의치에 견고하게 고정되는 이차적 치관 또는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관과 외관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서 작용하여 가철성 국소의치의 유지와 지지를 제공한다.

또한 전치부에 결손이 있어서 고정성 보철물을 하기 어려운 경우 국소의치에 의해 수복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심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증례에서는 Konus bridge에 의해 부분 무치악을 수복하는 경우 심미적, 기능적 회복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된다.